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제16차 세션, 하나님의 형상, 2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소개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2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개에 대한 16번째 세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을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그의 백성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게 되고, 저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3, 9, 10절, 특히 골로새서 10절에서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 안에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됨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 연관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써, 1장 15절에서,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 옛 자아와 합해짐으로써, 아담 안에 있음으로써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과 합해짐으로써, 1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라는 이미지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미지 속에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잃었거나 아담을 망친 이미지는 이제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결합됨으로써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절에서 지식이 새롭게 됨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의 지식 나무인 지식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고 싶지 않지만, 요점은 골로새서 3장과 1장에서 이미지라는 언어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명확한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문헌에서 하나님의 언어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3장과 18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과 18절.

뒤로 돌아가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다루는 그 구절의 끝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주시고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 언약의 목사입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얼굴에 베일을 두른 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점점 더 커지는 영광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제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영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4장 4절, 이 시대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시대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의 이 본문은 로마서 8-29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45장, 그리고 그 이후의 49장과 매우 비슷하게 이해되고 읽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콜로새서 1장과 15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합니다.

흥미롭게도 고린도후서의 절정에 고린도후서 5:17이 있는데, 새로운 창조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시작하시는 새 창조에 대해 이것을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한 하나님의 참된 형상입니다.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며, 그 형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 그 형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회복하고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코비의 책인 *The Ways of Our God*에서 다시 인용하자면, 그의 성경 신학에서 그는 바울이 종말론적 시대, 즉 새 창조,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구현한 사람, 즉 예수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믿는다고 요약합니다. 그 의도는 첫 번째 아담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자신이 시작한 새로운 창조에 대해 이것을 합니다. 이제 바울 문헌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담의 역할과 아담의 사명을 성취하고,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한 본문은, 제 생각에, 그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없다는 측면을 암묵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 특히 아담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위해 히브리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맨 처음에 있는 1장과 3절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태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의 존재의 정확한 표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형상을 지닌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의 정확한 표상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실 히브리서 2장 6 절부터 6절까지 저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 8편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찬양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 그는 그것을 다스리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의 저자는 6절부터 그 시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2장에는 누군가가 증거한 곳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들을 생각하십니까? 인자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돌보십니까?

당신은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낮추셨고, 영광과 존귀로 그들을 관쓰우셨고, 모든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시편의 의미를 끌어냅니다. 모든 것을 그들 아래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복종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또는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인간의 발 아래 복종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천사보다 낮게 되셨지만, 지금은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저자가 왜 시편 8편을 인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시편 8편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예언적이지 않습니다. 첫눈에 보면 다윗의 시편,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 자주 적용되는 일종의 왕의 시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시편 8편인가? 다시 생각해 보니, 다윗의 아들이고, 1장 5절로 돌아가 보면, 저자가 아들 본문을 다시 인용하면서, 그는 예수를 아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말입니다. 이제 2장에서 우리는 아담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시편 8편에서 확립되고 반영되었는데, 그들은 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 8장에서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시편 8편을 인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편 8편에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시편 2장과 시편 110편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아들로써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어, 아담의 언어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본문은 야고보서 1장과 8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죄송합니다, 18장, 야고보서 1:18은 다시,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아담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로 택하셨고, 우리는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암묵적으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새 창조를 논의하고 창조, 새 창조 주제를 언급하는 맥락에서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그의 창조의 첫 열매, 문자 그대로 그의 창조의 첫 열매 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암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첫 창조와 그의 형상을 지닌 아담에 대한 의도가 마침내 새 창조에서 그의 백성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과 22장, 특히 22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한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이 구원 역사의 목표에 대한 절정의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어린 양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새로운 창조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지금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22장의 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 요약에서 제가 방금 창조의 언어를 언급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첫 번째 창조와의 연결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22장 5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설명을 끝맺을 때, 그리고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새로운 창조에서 하는 일,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며, 5절에서 다시 밤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그의 백성은 어린 양의 빛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왕국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다시 다루겠지만, 저는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도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그들은 창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창조물을 영원무궁토록 다스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모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의 백성이 그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안에 회복되었고, 이제 우리는 아직 최종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회복의 완성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함께 모든 창조물, 새롭고 회복되고 새로워진 창조물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요약한다면, 그레그 비얼은 그의 신약 성경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해야 했던 일을 하고 그의 아버지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사람들이 그 형상을 그들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때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재림에서 성공적으로 완성될 새로운 창조 시대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안에서 변형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아담의 마지막에, 그 형상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안에서 변형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은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원래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창조를 다스리는 완성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 사이의 또 다른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다음 주제 또는 다음 주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성경적 신학적 신약 주제, 즉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로의 좋은 전환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포괄적인 주제이거나 지배적인 주제의 중심이거나 신약 신학의 중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확실히 두드러진 주제이며,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것은 신약의 다른 여러 주제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다시 논의할 때, 우리는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언어적 증거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에서 나온 왕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Malkuth 나 그리스어 *basilea* 에서 왕국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용어들의 출현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것들은 중요하며, 그것들은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들의 존재 또는 부재는 반드시 하나님 왕국이라는 주제의 존재 또는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왕국이라는 개념, 성경적-신학적 주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생각할 때 주로 두 용어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 또는 통치 또는 주권이라는 개념을 암시합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영국과 같은 지리적 영토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다른 개념에 관해 독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만, 대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나 통치 또는 하나님께서 온 지구에 확립하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모델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사회와 이 세상과 동등하게 되었습니다. 고전적인 경륜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지상에서 통치하실 미래의 천년 왕국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일정 기간, 즉 계시록 20장에서 읽은 천년 통치로 제한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 그 텍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개념 하나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민족을 천 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특정한 기간과 장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과 상호 작용할 것이고, 우리의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수반하는 모든 것을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우 광범위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 개념이 구약성경에서 어떻게 발전하여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성취되는지 살펴보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측하셨듯이, 그것이 성취의 관점에서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계획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관복음 본문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는 나중에 복음서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저는 단지 몇 가지 본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 율법 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를 번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확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로 우리는 그 용어가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나 통치, 그의 주권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 속할 수 있는 그 통치와 주권에 의해 창조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미 왕이라는 사실 사이의 긴장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확립하는 많은 시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지만,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왕권과 주권은 아직 그의 창조물 전체에 걸쳐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감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살펴본 다른 주제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시작점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서 구체적인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제가 말할 내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과 관련하여 논의했던 자료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부통령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통치해야 하며, 지구를 다스림으로써 모든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그 의도와 계획이 죄 때문에 어떻게 좌절되는지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동산 성소에서 추방되었고, 기본적으로 지구는 사탄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나중에, 특히 신약 성경의 일부 본문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게 되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편 8장에서 시편 8장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행위를 기념하고, 인간이 성취해야 할 것과 아담이 창조물을 통치함으로써 성취해야 할 것을 거의 이상화한 것을 기념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의 일을 다스립니다. 당신은 그의 손의 일을 다스리도록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듯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담이 창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시작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이것을 질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를 따라가면서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성경 신학에 대한 그의 작은 서론에서 인용할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에게는 일종의 하나님의 왕국의 동의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회복되어 온 지구에 확장될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전 세계에 세워질 것인가?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후, 구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그의 주권을 회복하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의도한 대로. 다음 시간에는 구약성경의 주요 부분을 훑어보겠습니다. 저는 붓으로 다소 넓은 획으로 칠할 시간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단 지점은 출애굽기 19장 6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도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성취해야 합니다. 즉,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창조물 전체에 걸친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그의 임재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하십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그의 제사장 왕국으로 선택하시어 결국 모든 창조물 전체에 그의 통치를 확장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에서 그의 통치와 현존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또 다른 중단점은 실제로 그 본문보다 조금 앞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따른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통과한 후 부른 노래입니다. 이집트인의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15장 11-13절과 17-18절에 있습니다. 11-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으리요? 거룩함에 위엄이 있고 영광에 두려우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이다.

당신은 오른손을 뺏으시고 땅이 당신의 원수들을 삼키나이다. 당신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리고 17-18절. 당신은 그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유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거처로 삼으신 곳, 성소, 주님, 당신의 손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확립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그의 통치를 증거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탈출 자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근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에서도 우리는 왕권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발견합니다. 다음 정지점은 이스라엘의 군주제와 다윗 언약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서 사무엘 하 본문을 간단히 읽고, 그다음에는 다른 본문들을 읽지 않겠습니다. 다윗 언약과 관련하여 이미 읽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언약에 대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여 통치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통치할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 다윗이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다윗의 왕좌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사실, 1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날이 다하고, 당신이 쉬고, 다윗이 죽어서 당신의 조상들과 함께 갈 때, 나는 당신의 후손을 일으켜서, 당신의 혈육을 이어받게 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국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 집, 내 이름, 성전을 지을 자이며,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 언약 공식.

그리고 사무엘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서 역대기를 읽을 때, 우리는 왕들이 왕을 거둬서 성취한 이스라엘의 군주정에 대한 기록을 읽습니다. 그 중 일부는 선하고, 일부는 매우 나쁘고 사악하며, 결국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고 유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저는 다윗 언약으로 시작해서 확립된 이스라엘의 군주정이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과 이스라엘이 다스리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따르면, 여러분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담이 창조물을 다스리려는 의도는 죄로 인해 망가졌고, 새로운 아담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려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성취하실 방법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통해 중재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왕이 있을 것이고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이라는 언약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저 덧붙여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왕을 주어서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며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고,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되어 아담과 이브가 하지 못한 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군주제를 수립함으로써 제사장 왕국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시편으로 넘어가면 다윗 왕과 왕국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언급을 발견하지만, 결국 보편적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장에서 우리는 종종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시편 2장에서, 왜 열방이 공모하고 백성의 음모가 헛되었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주님과 기름부음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모여서,

우리가 그들의 사슬을 끊자고 합니다. 4절,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6절, 나는 시온, 나의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나는 주님의 율례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나는 네 아버지가 된다.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민족들에게 네 유업을 주리라. 땅 끝까지가 네 소유 이다 . 그래서 시편 2장에서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의 성취에 따라 온 땅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결국 이루어질 것임을 봅니다.

시편 8편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다윗의 시편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두 시편 모두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시편 8장은 창조물을 다스리는 인류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시편 89장은 또 다른 다윗의 텍스트인데,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왕과 온 세상과 온 지구에 보편적으로 확장될 왕국을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야훼가 이미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24장 1절에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는 바다 위에 그것을 세우셨고, 물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9장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으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즉위하셨다. 시편 47장 1절과 2절, 또한 47장 1절과 2절, 만국이여 손뼉을 치며 여호와 께,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으로 외치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서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니라.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 하나만 더, 시편 103편 19절, 주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고 그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 당신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의 왕이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여전히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의 주권을 확립하고 모든 사람을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 아래로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 사이의 긴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첫 번째 형상을 지닌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6-28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과 이브가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온 세상에 확장하는 것이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은 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새로운 백성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아담은 아담이 하지 못한 것을 할 것입니다. 즉, 제사장 왕국으로서, 제사장 왕국으로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임재를 모든 창조물 전체에 확산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창조물에게 중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담과 이브보다 더 나은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짓고 땅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뒤로 물러나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제사장 왕국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요? 그것은 다윗 군주제를 통해서입니다.

군주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과 그의 후손, 그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도 자신의 의도를 이루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가 온 지구에 퍼질 것 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더 나은 처지가 아니었고, 왕권의 영속은 많은 왕들이 죄가 많고 사악했으며,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외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를 다윗 왕 또는 왕국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로 이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살펴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회복되어 온 지구에 확장될까요? 아담과 이브가

성취해야 했고, 이스라엘이 성취해야 했지만 죄 때문에 실패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온 세상에 세워질까요.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국이 어떻게 온 지구에 회복되고 세워질까요? 그러면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의 왕국을 세우실 수단은 다윗 왕권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권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회복, 다가올 새 창조, 다가올 구원, 하나님 백성의 다가올 회복을 언급하는 구약의 예언적 본문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을 가장 잘 알려진 텍스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잘 알려진 텍스트 중 하나는 이사야 9장입니다. 다윗의 왕권 주제가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제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의 싹이 돋아날 것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도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예세의 뿌리나 싹에 대한 그런 종류의 언어는 종종 이사야가 회복된 다윗의 왕권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지만 9장 6절부터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부는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왕권과 주권 언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조연자, 전능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의 통치와 평화의 위대함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와 다윗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며, 그때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세우고 지탱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그의 책의 맨 처음에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이 회복되어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다른 텍스트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과 3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텍스트가 다윗 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중 일부는 더 광범위하게 회복될 왕국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34장 2절 이하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을 읽었고, 전체를 다시 읽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34장과 2절부터 28장까지는 양과 목자의 언어와 이스라엘 목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데 형편없었다는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또 다른 목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 34장 20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붙이고, 너희 뿔로 약한 양들을 다 싹틔우며 몰아낼 때까지 그러하느니라.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약탈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한 양과 다른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나는 그들 위에 한 목자를 두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는 그들을 돌보고, 돌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주님이 이것을 말하였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 37장에서 그것을 보았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요, 그들 모두가 한 목자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내 법을 따르고 내 법령을 지키는 데 주의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도 다윗 왕조의 회복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땅으로 회복시키실 때, 그리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언약 관계에서 다윗의 약속이 성취될 때.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에는 또 다른 본문이 미래의 회복, 곧 하나님 왕국의 미래의 도래를 예상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가서 왕,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땅의 사람 중에 누구든지 왕,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통치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올라가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통치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는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고, 올라가서 지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벌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지만, 스가랴 14장도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회복하실 때를 예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성취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모든 것이 원래의 창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통해 모든 창조물에 그의 통치를 퍼뜨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니엘 7장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다니엘은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는 뿔이 하는 자랑스러운 말 때문에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짐승이 죽고 그의 몸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환상에서 다니엘 7장 13절을 보았는데, 밤을 보니, 내 앞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하늘 구름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옛날의 날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면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권세와 영광과 주권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의 통치권은 다윗 언어, 다윗 언약 언어, 영원한 왕국,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원한 통치권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또한 우리가 기업과 개인을 모두 언급했던 인간의 아들의 모습을 예상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대표하는 개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통치를 영원히 확립하려는 다윗 언약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아들의 모습.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왕국.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통치를 퍼뜨리는 창조 당시의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증거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온 지구에 대한 보편적인 통치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다윗의 통치자를 통해 이것을 이루실 것이고, 구원의 축복과 그의 왕국을 그의 백성에게, 그리고 결국 온 지구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언적 텍스트가 끝나는 곳입니다. 그 약속과 그 기대로. 이것은 우리를 공관복음으로 이끕니다.

아니면 신약이 우리를 신약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들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는 14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좋은 소식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서 정확히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에 이어서.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은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텍스트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와 함축에 관해 정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정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니다. 흥미롭죠.

가까이 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 지금 네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뭐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예수님과 독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구약성경 본문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며, 그 왕은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통치는 결국 온 지구에 퍼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예수께서 의도하신 바와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했다고 전파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해한 바를 알려주는 배경을 형성하는 듯합니다. 이제 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릴 또 다른 사항은 예수 메시지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어떤 면에서 왕국이 이미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존재하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아닌 그 시작된 종말론의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와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미래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지금 그것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지 엘던 래드의 글 중 일부는 적어도 미국에서 대중화에 가장 흔했지만, 그 전에 오스카 쿨만과 다른 사람들은 왕국이 지금 여기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아마도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대중화한 사람은 조지 엘던 래드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전에 개발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 후에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마도 왕국에 대한 이해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적 본문에 따르면,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의 날, 새로운 창조가 도래하는 날, 회복의 날에 일어난 미래의 일이며, 지금의 새로운 예수와 신약의 저자는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과 현현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이미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증거와 나머지 신약의 증거를 살펴볼 때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어휘적 데이터 중 일부에 관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문구 자체는, 제 생각에 그 문구가 구약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왕, 왕권,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문구는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네 번만 나타납니다.

대신, 마태는 다른 구절, 즉 천국을 선호합니다. 제 생각에, 그 두 용어는 동의어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마도 이 왕국을 위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는 단순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상 왕국과 대조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를 선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4번 대조하여 32번 사용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구를 14번 사용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문구를 32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단 네 번만 사용합니다. 그는 영원한 삶이나 생명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데, 공관복음서는 종종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러 오셔서 하시고 제공하시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요약할 수 있다면, 끝까지 기다려서 이 구절들을 살펴보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의 신약 신학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러 오셨을 때, 그는 무엇을 제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청중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이해했습니까? 톰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이 승영되고,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영광스러운 시대의 새벽을 선포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의 왕으로 섬길 것이고 유배는 끝날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율법을 지킬 것이고, 새로운 창조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슈라이너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 모든 것을 덮는 일종의 담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쉽게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확립되는 시간, 의미, 효과, 그리고 수반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러 오실 때,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독자들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독자나 그의 청취자들이 종종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왕국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의해 제공되고 선포되고, 남자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점은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주 처음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의 나머지 일을 다윗의 아들로써 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를 다윗의 아들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태는 즉시 당신의 마음이 모든 다윗의 약속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부터 시작하여 시편과 예언적 본문까지 그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이제 다윗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합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와 회복된 다윗 왕국의 약속. 사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1장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족보를 건너뛰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넘어갑니다. 족보는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된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연결하여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을 합법적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의 진정한 아들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들은 계보가 14세대의 세 세트로 나뉜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온 진정한 다윗의 왕이라는 것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아들로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다윗의 아들로 불립니다.

마태는 다윗의 언어와 본문을 여기저기서 꺼내어 약속된 다윗의 왕이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영원한 통치권,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국을 회복하고 성취할 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증거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이자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2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개에 대한 세션 16입니다.